

세계 현대 단편소설집 《휴일의 소설》 당신의 휴일을 위한 단편 종합선물세트

글_이주연 기자



휴일의 소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외 지음 | 이어령 편저 | 문학사상 | 376쪽 |
값 9,000원

가을은 '어느새' 인가 싶게 설레는 바람의 결을 따라 가까워졌다 서리를 부르는 사나운 '북풍' 에 밀려 사라져버렸습니다. 느닷없는 겨울이 낮설어 창밖으로 북풍의 서늘한 자락을 바라보기만 하는데도 머리 한쪽이 지잉 울립니다. 이런 날씨의 휴일에는 바깥에 나가 맨 얼굴을 내밀고 겨울과 인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두 번째 책 선물을 하려는 것이구요. 몇 년 전 선물 받은 짧은 시집도 '아직 못 읽은' 당신에게 무슨 '짓' (?)이냐고 펄쩍 뛴지만 진정하세요. 이 책은 '휴일을 휴일답게 온전히 보내고픈'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오죽하면 제목부터 《휴일의 소설》일까요.

아시아, 유럽, 남미의 단편소설 18편이 들어있는 이 책은 일단 길이 면에서 당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원래 소설 미학의 진수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맞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뛰어난 단편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아이작 디네센,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나탈리아 진츠부르크 같은 세계 최고의 소설가들이 삶의 이면에서 건져낸 '진정성' 과 '영원성' 을 주재료로 최고 단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어낸 이야기야 뭐 뻔하지' 라는 당신의 고정관념에 뒤통수를 날릴 만한 반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첫사랑에 대한 추억으로 남은 생을 꾸러기는 난쟁이 이야기(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몽당난쟁이>)나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냉소적인 추리가 이야기(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죽음과 나침반>), 사랑이 완성된 자리에서 사랑의 허상을 깨닫는 신혼부부 이야기(아이작 디네센 <반지>) 등은 '뻔한 삶' 이 숨기고 있는 '감히 짐작도 못할 비의(非意)' 를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쉬는 순간까지 소설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휴' (休)를 선택하겠노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지구 반대편, 미지의 존재들이 느끼는 고독과 불안과 사랑을 연민하다 보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삶의 일상성' 앞에서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겸손이 당신 삶의 진정한 '휴' 를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하는 것이구요.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이 1975년 여름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 당시 태국이나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작가의 단편 소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책의 편저자가 이어령 선생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기획이 아니었겠지요. 지금 이 작가들은 모두 현대 문학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덕분에 이 책은 출간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전혀 '시대에 뒤떨어진다' 는 느낌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설, 현대의 작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삶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 그래서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는 것 말입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이 계절, 무의미한 휴일에 무언가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내가 선물한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세계 최고의 소설가들이 준비한 단편 종합선물세트는 당신의 휴일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당신의 늙은 감성에 독특한 윤희유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주연**